

총선 D-14, 민주 110·국힘 82곳 ‘우세’…60곳 ‘경합’

여야 판세 자체 분석…민주당, 광주·전남·전북 모두 ‘우세’ 전망
전국 관심지역 ‘광주 광산’ 민형배 57%·이낙연 13% 4배 차이

여야 양당이 4·10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는 국민의힘 82곳, 더불어민주당 11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 광주 광산을 선거구를 비롯해 광주·전남·북에서는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졌다.

특히 무소속 또는 군소정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양당이 전체 254개 선거구 중에서 60곳 안팎에서 아직 확실한 우세를 장담하지 못해 막판 격전지에서 여야 경쟁도 뜨거울 전망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84개, 민주당은 163개 지역구에서 승리한 점을 고려하면 양당 모두 초반 판세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당 모두 전통적 텃밭에서는 승리를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15곳 가운데 13곳을 우세 지역으로 전망했다. 무소속 최경환(경북 경산)·도태우(대구 중·남구) 후보가 출마한 2곳이 경합 열세 또는 경합을 오가고 있다고 자체 평가한다. 강원(8석)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은 현역 지역구 6곳 모두를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했다. 강원에서 민주당은 어느 지역도 우세로 분류하지 않았다.

호남에서 민주당은 광주와 전북, 전남 등 28개 지역구를 모두 큰 이변 없이 석권할 것으로 자신했다. 제주(3석)에서도 민주당은 제주갑·을을 우세, 서귀포를 경합 우세로 각각 분류했다. 제주에서 국민의힘이 우세나 경합 우세를 예상한 곳이 없었다.

양당의 전략통·지역 선대위 관계자를 상대로 권역별 세부 판세를 취합한 결과, 수도권 전체 122개 의석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세한 지역으로 국민의

힘은 20개, 민주당은 97개로 각각 파악했다.

직전 총선 의석수는 국민의힘 16개, 민주당 103개였는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당시보다 다소 높게, 민주당은 다소 낮춰 전망한 것이다.

48개 의석이 걸린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판단한 우세 또는 경합우세 지역은 10곳이며, 민주당은 강북권 및 서남권 21곳을 우세로 분류했다. 여기에 종로(곽상인), 중·성동갑(전현희), 강동을(이해식), 마포갑(이지은)도 경합 우세로 예상했다.

양당이 우세·경합 우세로 분류한 이들 35곳을 빼면 나머지 13개 지역은 승패를 예측하기 힘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는 뜻이다. 용산(권영세·강태웅), 영등포갑(김영주·채현일) 등이 대표적 경합지로 거론된다.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의석이 걸린 경기도(60개)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이긴 지역구 7개를 우세 또는 경합 우세 지역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또 ‘반도체벨트’로 불리는 수원과 용인 일부를 경합지로 분류하고 승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기존 현역 지역구(51개) 대부분에서 ‘수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24일 광주 광산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57%를 새로 운미래 이낙연 후보가 13%를 얻었다.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와 진보당 전주연 후보가 각각 3%, 2%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각 지역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9.4~15.7%다.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고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억울한 소상공인 보호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범으로 보호받게 됐다. 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

앞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도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신규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을 입주협약 체결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열린 고흥, 울진 국가산업단지 입주 협약식에서 공영민 고흥군수(왼쪽부터), 김영록 전남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수중 이노스페이스 대표이사가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 “에너지 중심·우주로 가는 길 전남에 투자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산단 입주협약식 참석
여수 동북아 LNG 허브
고흥 우주국가산단 세일즈 나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자본을 전남에 유치하기 위해 세일즈에 나섰다. 전남이 직접 투자를 단행해 조성 의지를 밝힌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허브로 키우고, 우리나라에서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는 유일한 거점에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고흥 우주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김 지사는 26일 충남 천안시청에서 열린 정부 주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1조 4000억원 규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민간 자본 투자를 재촉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발굴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의 정부 프

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설명회를 갖고, 올해 1월부터 펀드 신청 공고에 들어갔다.

출범식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수도권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관계자, 산업은행 회장 등 국책기관장, 기업계 및 금융계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남의 ‘여수 묘도 LNG 터미널사업’은 민자 1조40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인프라사업으로, 사업성이 높고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 모범 준비 사례로 뽑혔다. 김 지사는 “여수 묘도에 들어설 LNG 허브 터미널은 광양만권 산단에 연간 300만톤의 LNG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으며 친환경 LNG선박 산업에도 활기가 돌 것”이라며 “LNG 냉열산업 육성과 함께 국제 LNG거래소도 유치해 광양만권을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최대 LNG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은 여수시 묘도동 일원 8만3000평 부지에 LNG 저장탱크,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1만30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2조8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LNG·수소 배

관망 구축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전라선 고속철도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참석한 정부부처 고위공직자, 민간 기업인 등에게 고흥 우주테마 리조트, 여수광양 수소 배관망, 카카오 데이터센터, 솔라시도 특급호텔 등 민간 투자 대상 사업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영록 전남지사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공영민 고흥군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8개 기업 대표 등 50여 명과 함께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예타 면제를 위한 기업 수요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참석한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즈로넥스텍, 이노스페이스, 세일엑스, 더블유피, 우리빌, 동아알루미늄, 파루 등 8곳이며, 페리저어로스페이스, 우나스텔라, 중앙이앤씨 등 3곳은 서면으로 참여했다. 전남도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기획용역을 추진, 민간발사장 핵심 기반시설 구축,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2031년까지 1조608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완벽한 전남 여행을 위한 전남관광플랫폼

전남관광플랫폼으로 더욱 특별한 전남여행을 경험해보세요!

번거로운 버스 예약도

취향저격 숙박 예약도

현지인 추천 맛집 예약도

투어, 티켓 예약도

교통, 체험, 맛집, 체험까지 **한방에 할인**

지금 QR코드를 찍고 전남관광플랫폼 JN TOUR를 다운 받아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vailable on the
App Store